

닭 먹으며, 6월의 함성 외친다!

닭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닭사모가 지난 3월 22일에 4주년을 맞아해 지난 26일 홍대 캐치라이트에서 명랑문화응원단을 꿈꾸며 블은닭 창립식과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닭사모를 모태로한 블은닭은 2002년 한·일 월드컵때 닭요리를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에 닭을 전달하면서 결성된 다소 장난끼 어린 응원단으로 시작해 지난해 11월 그때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 재결성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다.



▲ 치킨을 맛있게 먹는 블은닭



행사 전부터 차례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닭사모 회원들과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스텝들의 분주한 모습에서 명랑문화응원이 시작부터 범상치 않았다.

특히 3월에 접어들면서 블은닭 준비위원회는 매주 모여 행사준비를 시작했으며 행사 준비부터 다방면에서



▲ 7공주의 닭-댄스

종사하는 회원들이 자진해서 끼를 발산했다. 캐치라이트 대관담당자인 회원, 노브레인과 친분이 있던 회원, 응원서포터 경험이 있는 회원, 붉은 티셔츠를 제작한 디자인 전공 회원, 공연기획사에 다니는 회원, 붉은닭 응원가를 부른 락커회원 등 모두가 자진 동참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두호 닭짱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축제는 시작되었고 초청게스트인 7공주의 발랄함과 귀여움이 넘치는 응원과 꼭지점 댄스 시범에 맞춰 모두가 한데 어울려 졌으며, 고구려밴드와 노브레인의 거침없는 공연으로 열기가 최고조에 오르며 내재되어 있던 젊음을 내뿜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날 행사의 주체인 붉



▲ 회원들의 패션쇼



▲ 닭짱 이두호 씨



▲ 자원봉사자 회원들의 즐거움 모습

은닭 회원들은 붉은닭 마스코트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붉은닭패션쇼’, ‘4주년 파티’, ‘응원가 발표’, ‘붉은닭 댄스’, ‘기차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이날 명랑문화의 핵심인 응원가 발표와 함께 붉은닭 회원들 모두가 체면에 걸린 듯 “닭닭닭 닭닭닭 닭닭닭닭~”을 외치고 있었다.

마지막 행사로 닭사모 본연의 의무를 위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다같이 닭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움을 더했다.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닭사모를 만들고 다가오는 월드컵에 문화응원단을 표방하며 붉은닭을 결성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바램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응원에 힘을 더한다면 다가올 월드컵이 한층 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의 장에서 붉은닭의 합성을 울려 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양계]**

